

현장속으로

제1회 오쇼 사마디 페스티벌 & 심포지엄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자혜 스님 (上)

불광산 교육체계 세워

1992년 11월 8일, 대만의 주요 일간지와 영자지에 눈길을 끄는 사신 하나가 실렸다. 장삼을 걸친 단아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사법원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이등휘(李登輝) 총통과 악수하는 장면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비구니 스님이 총통과 악수를 하고 매스컴의 찬탄을 받는지 의아해 했다. 그는 다름 아닌 제 2회 중화민국사회운동상 시상식장에서 사회개선에 앞장선 훌륭한 인물로 선정되어 상을 받

트 여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혜 스님이 어떻게 불광산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당시 성운 대사는 이란에서 열불회와 각종 청년회 활동을 이끌고 있었는데 자혜 스님도 거기에 동참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 가끔씩 핑계를 대고 빠지기도 했지만, 점차 성운 대사의 인품과 박식함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성운 대사를 따라 강연회에



참석하면서 그의 중국어를 대만 본토어로 통역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1965년, 정식으로 출가하게 되었다. 불교에 대해 회의론을 갖고 접 근했던 한 신여성이 비구니가 되기까지는 10여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이는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출가한 것

성운대사 만나 불교에 귀의 대만 최초의 석사 비구니

이 아니라 조급식 불교의 큰 바다에 빠져들면서 스스로의 확신

에 의해 귀의했음을 말해준다.

1967년 자혜 스님이 성운 대사를 따라 불광산의 터전인 된 까오승 대수항(大樹鄉)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스님은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모래를 나르고 돌을 옮기며 불광산 장면에 신심을 바쳤다. 그러한 혹독한 고행으로 삼미암아 오열의 불광산과 자혜 스님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성운 대사는 '인간불교'를 구상하면서 교육, 문화, 자선, 법회라는 네 개의 큰 기둥을 세웠다. 그 가운데서 자혜 스님은 교육과 문화의 두 가지 중책을 맡았다. 자혜 스님의 그 뜻을 알아본 성운 대사는 이러한 대임을 맡기 위해 불광산 개산 초기의 어려운 시기에 이미 스님을 일본 오다 니대학(大谷大學)에 보내 유학하게 했다. 그 결과 대만에서는 비구니로서 최초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귀국 후에는 불광산의 강의를 맡으면서 불광산 자체의 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인 승가교육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계속)

김재경 기자

'오쇼 명상' 부활을 꿈꾼다

80년대 초반부터 책을 통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인도의 명상이 오쇼 라즈니쉬. 그러나 오쇼의 명상법을 실제로 행하는 이는 많지 않았고, 관련 명상센터도 소수에 의해 근근히 맥을 이어오는 정도였다.

그러했던 오쇼 명상이 부활의 계기를 맞았다. 국내의 산아신(라즈니쉬의 제자들)을 비롯한 오쇼 매니아들이 OSKA (Osho Sannyas Korean Association: 약칭 오스카)를 설립, 오쇼 관련자들을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축제를 기획했다. 오쇼의 열반일(1월 19일)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국내의 오쇼 관련자 70여명이 참가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강원도 원주 파라미 명상원에서 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행사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삿상' 과정 중 침묵을 통해 스승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참가자들.

오쇼 오쇼! 삿상 절정

▲ 만남과 축제 = 흰 눈이 소복소복 쌓이던 17일, 파라미 명상원의 150평 대형 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시브, 스미타 등 낮은 이름을 부르며 포옹하는 이들 뒤로 오쇼의 사진을 담은 대형 플래카드가 보이고, 축제 분위기 고조를 위해 달아낸 퍼퓸용 풍선이 열은 불빛에 끊임없이 반짝였다.

첫 프로그램의 시작은 스승과의 삿상. 이는 진리와 하나가 된 스승 가까이 앉아 있는 시간으로, 스승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기 위한 순간이다. 참가자들은 '음악과 함께하는 춤'과 '얼어붙은 침묵'을 교대로 진행하며 스승과의 교감을 시도했다. 시간이 흐르며 따라 음악은 점차 격렬해지고 '오쇼'를 3번 외치며 삿상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3번의 웅장한 북소리로 일련의 과정을 마친 후에는 오쇼의 강 의비디오를 시청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요가치료를 전공하는 김복태

라즈니쉬 열반일 맞아 국내 첫 축제 열려 춤 음악 침묵 속에서 70여명 에너지 교류

씨는 "운집된 군중 에너지에 자발적으로 고조된 자체 에너지가 결합돼 색다른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자못 신기해 했다.

이후 아프리카 댄스, 탠트라 명상 등에 젖어들며 나눔은 한층 깊어졌고, 설경에 기대어 체험에 기반한 명상을 논하는 소리 또한 전해져 갔다.

카타르시스 체험시간

▲ 아침을 맞는 춤명상 = 아침 7시, 파라미 꼭대기에서 쏟아내리는 별을 맞이하며 다니마키 명상이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격렬한 호흡'과 '모든 것을 내던지는 몸짓표현'에 이어 몸속의 깊은 울림을 "후!후!후!" 소리로 끌어올려 에너지 고양에 전력을 다했다. 숨소리는 점차 거

칠어지고 몸의 구석구석에서 진한 땀이 배어나왔다. 그러나 모든 동작을 멈추고 침묵과 함께 얼어붙었을 때 스스로를 관하는 마음을 얻게됐다. 마음수련 등 명상 센터 강좌를 두루 체험했던 이현주 씨는 "카타르시스를 허용함으로써 상념의 정지를 도울 수 있었다"며 "이런 아침 다니마키 명상은 마음의 건강과 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춤명상 시간에도 이어졌다. 이 시간은 운몽의 세포를 일깨우는 걷기명상으로 시작, 차츰 격렬해지는 명상음악에 따라 모든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몸짓을 이끌어냈다. 몸의 표현에 익숙해진 이들의 얼굴에는 다양한 감정표현까지 피어올랐다. 행사를 이끈 최항식 씨는 "테크닉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를 통

해 몸의 이해와 각성을 끌어낼 수 있다면 오쇼 명상은 가장 실천적인 명상 수행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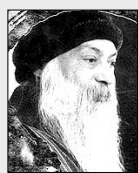
"OSKA 문화운동 이끌어야"

▲ 오쇼명상을 심도있게 논의 = 심포지엄 시간에는 김진득(음악평론가) 씨의 '오쇼와 뉴에이지 문화', 최항식(전 니케타나 센터 원장) 씨의 '현실 속에서의 삶과 명상'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손민규(명상나라 대표) 씨는 '오쇼관련 출판 문화'를 발표, 오쇼 출판물의 출간 및 번역 현실을 토대로 국내 오쇼 명상의 총체적인 문제를 이끌어내며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 같은 논의는 OSKA발족을 얘기하며 보다 심도있게 진행됐다. 손민규 대표는 "OSKA의 구심점은 비산아신이 돼야한다"며 "뿌나 아쉬리 문화 안에 갇힌 산아신들이 폐쇄적 태도를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오쇼 명상 도입이 문화적인 운동(movement)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주=강신재 기자 thalswhy@buddhanews.com

■ 오쇼 라즈니쉬는?



1931년 인도에서 태어나 21세의 나이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명상가. 현대인들을 위한 다니마키 등의 동적명상법을 개발, 70년대 이후로 세계 각국 구도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또한 동양 명상에 대한 통찰과 서양 정신요법을 결합한 치료집단을 창설해 주목을 받았다. 74년 설립된 인도 뿌나의 코핀(공동체)은 현재까지 구도와 명상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명상하면 건강해진다" 美 의과학계 잇따라 발표

명상이 건강을 증진한다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저 월쉬(Walsh)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항우울 작용을 설명하고 동시에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명상을 통해 사람들은 인내력을 증가시키고 자극적인 생각에 방해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정신과 신경증(Journal of Mental and Nervous Disorder)>에 게재됐다. 최근 미국심장학회의 회의에서도 초월명상(TMI) 대사

장에 증후군들의 위험요소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LA 세타스 시나이 메디칼센터 노엘 배일리(Dr. Noel Bairey Merz) 박사는 "초월명상을 한 사람들은 혈압, 혈당치와 인슐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디애나 주립대 제인 크리스텔러(Jean Kristeller) 교수는 "위빠사나의 '마음챙김' 명상은 거식증 환자들이 식사습관 회복을 도와, 언제 먹고 언제 그만둘 것인가를 몸과 마음이 알게 한다고 밝혔다. 미국=강우신 뉴욕특파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선은 본래는 언제나 자유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명동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0) 228-2358
http://www.avatarcene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본인의 눈으로 전생 및 빙의 여부를 직접 확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직접 대화,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전생·빙의 특별워크샵

WWW.HYPNOS114.COM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한국전생빙의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 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종략 -

또 하나는 저 스스로 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전생을 알고 나서 참선했 때마다 밀려들던 번뇌, 망상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관과는 다른 아주 깊은 선정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략 -

00사00장

【특 전】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전생상담사 인증서 수여
【교육기간】 1회: 2월 9일(월) 오후 12:30 ~ 오후 9:00까지
2회: 2월 10일(화) 오전 10:00 ~ 오후 8:00까지
3회: 2월 17일(월) 오후 12:30 ~ 오후 8:00까지
4회: 2월 24일(월) 오후 12:30 ~ 오후 8:00까지
총 4회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전화접수 후 입금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출정장의 가능)
【교육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외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서동 248-30(충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대野 임재형 박사
상담학 박사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원장
한국생활리듬심리학회 회장
한국교육심리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부회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